

JB금융, 외국인 전용상품 마련…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

광주은행, 금전에 ‘외국인금융센터’ 수도권 외국인 금융수요 대응 나서
국내 외국인 대출시장 점유율 70% 전북銀 근로자, 광주銀-유학생 대응

JB금융그룹이 외국인 금융을 확대하고 있다. 주요 계열사를 중심으로 유학생과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전용 상품을 출시하고, 온·오프라인으로 외국인 전용 상담을 서비스한다. 대출 다변화를 통해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중·장기 고객 확보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17일 JB금융그룹에 따르면 광주은행은 최근 서울 금천구에 ‘외국인금융센터’를 개점했다. 광주은행은 금천외국인금융센터를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 내 외국인의 금융 수요에 대응하고 매출을 다변화한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JB금융은 기존에도 전북은행의 ‘동대문외국인금융센터’를 통해 수도권 내 외국인 금융수요에 대응해 왔다.

국내 외국인 금융 시장에서 JB금융이



전주 전북은행 본점과 김기홍 JB금융그룹 회장.

/JB금융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JB금융은 국내 외국인 대출 시장에서 점유율이 70%에 달한다. 지난 2분기 말 기준 전북은행의 외국인 신용대출 잔액은 6648억원 규모다. 광주은행도 706억원의 대출잔액을 기록했다. 담보대출 위주로 상품을 운용하는 JB우리카페탈도 3492억원의 외국인

대출을 공급했다.

계열사별 전략도 뚜렷하다. 전북은행은 중앙아시아·남아시아 출신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한 서울 동대문·경기도 안산 지역에 특화 점포를 출점해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JB우리카페탈은 외국인 대상 중고차 할부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했

다. 광주은행은 수도권 내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사업자의 금융 수요에 대응한다는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지주사 차원에서 계열사의 외국인 금융 확대를 지원한다. JB금융지주는 지난 3월 입국 초기 외국인도 임시식별번호를 통해 전북은행·광주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했다. 지주사 채용 전형에는 외국인 대상 서비스 연구를 위한 외국인 전형을 신설해 전문성 높은 외국인 유학생 출신의 직원을 충원했다.

JB금융이 외국인 고객 확보에 적극적인 것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높은 주요 고객층으로 부상해서다.

작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8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에 해당한다. 외국인 고객은 환전이나 송금 등 금융 서비스 이용률이 높다. 또 계좌 발급이 번거로운 특성상 장기 거래를 선호한다. 또한 외국인 고객은 대안정보나 기업 보증을 활용한 전용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잦는데, 해당 대출 상품들은 일반 대출

보다 수익성이 높은 편이다.

지역금융의 성장 한계도 JB금융그룹이 외국인 금융을 확대하는 이유다. JB금융의 주요 계열사인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은 지방은행에 해당하는 만큼, 거점지역인 서남권 바깥에서는 제한적으로만 영업할 수 있다. 점포와 인력도 서남권에 편중됐다. JB금융이 점포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영업 확대보다는 수익성과 잠재 성장력이 높은 외국인 금융 분야에 적극 투자하는 이유다.

외국인 금융 확대에 대한 김기홍 JB금융그룹 회장의 의지도 명확하다.

JB금융 관계자는 “최근 JB금융의 외국인 채용 확대는 JB금융의 외국인 대상 서비스 확대를 위해 김기홍 회장이 직접 추진한 사안으로, 본인이 미국 유학 시절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능력을 증명하고 자했던 경험에서 착안했다”라며 “외국인 채용 확대 이후 외국인 대상 대출이나 디지털 서비스에서도 성과가 가시화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부실 PF 정상화 지원… 3조 신규펀드 조성

금융위, 캠프 지원펀드 실적·계획 점검 605억 펀드 투입 3000억 사업 정상화 총 178가구 규모 아파트 2028년 준공

금융위원회가 캠프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를 활용한 부실 사업장 정상화 사례를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3조원 규모의 신규 펀드 조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7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한 PF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의 금융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캠프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의 운용실적과 신규 펀드 조성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한 마포구 사업장은 PF시장 불안과 부동산 경기 둔화,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으나 캠프 펀드 지원을 통해 정상화한 사례다.

해당 사업장은 2022년 하반기 이후 본PF 전환에 실패하면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신한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캠프펀드가 2024년 5월부터 총 605억원을 투자해 기존 채권과 사업권을 인수하고 사업 재구조화에 나섰다. 이 가운데

캠프 자금은 275억원이다.

펀드 투입 이후 기존 도시형생활주택에서 중·소형 아파트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신규 시공사를 선정하면서 본PF 전환이 이뤄졌다. 사업장은 올해 2월 착공한 데 이어 4월 분양을 마쳤으며 현재 분양률은 100%다. 총 178가구 규모로, 2028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사례에 대해 605억원의 펀드 투입으로 약 3000억원 규모의 부실 주거 사업장을 정상화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캠프에 따르면 2023년 9월 조성된 기존 캠프펀드 규모는 총 1조953억원이다. 이 가운데 캠프가 5000억원, 민간이 5953억원을 출자했다.

현재까지 총 8193억원의 투자가 완료됐으며, 이 가운데 3730억원이 주거사업장에 투입됐다. 이를 통해 약 3881가구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캠프펀드 투자와 별도로 민간 병행투자도 약 4500억원 추가 유치됐다.

정부는 기존 펀드에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3조원 규모의 신규 캠프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 투입도 추진한다.

권 부위원장은 “사업이 중단된 상황에서 캠프펀드가 용도변경과 시공사 변경 등을 통해 사업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민간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며 “부실사업장 정상화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신규 조성될 캠프펀드가 주목적 투자 비중인 60% 만큼 주거사업장에 투자될 경우 약 1만8000가구의 주택공급이 기대된다”며 “주택공급 촉진에 신규 펀드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운용사들은 신규 펀드의 투자 대상과 집행 방식의 유연성을 높이고, 민간 자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석원 신한자산운용 대표는 “신규 캠프펀드가 주택공급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 자본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 등 정책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갑주이지스자산운용대표도 “사업장별 다양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투자 대상과 투자 조건의 유연성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유리 기자 yul115@

신한금융, 우즈베크·카자흐와 금융협력

중앙아시아 금융시장 진출 속도

신한금융그룹이 우즈베크스탄과 카자흐스탄 정부·국영 금융기관과 잇따라 협약을 맺고 중앙아시아 금융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14~15일 우즈베크스탄 투자산업무역부 및 카자흐스탄 국영 개발금융그룹 바이테렉(Baiterek)과 금융협력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신한금융은 우즈베크스탄 투자산업무역부와 협력계약(Cooperation Agreement)을 맺고 현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최대 2억달러 규모의 자금지원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현지 투자 프로젝트를 공동 발굴하고 인프라·신재생에너지 분야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양측은 정기 협의회를 운영하며 추가 협력 과제도 발굴하기로 했다.

신한금융은 카자흐스탄과의 금융협력도 확대한다.

신한금융은 같은 날 열린 한국-카자



우즈베크스탄 투자산업무역부와와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오른쪽 첫번째)과 정상혁 신한은행장(두번째)이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

흐스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카자흐스탄 국영 개발금융그룹 바이테렉과 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직무 연수와 시찰 방문, 세미나·워크숍 등을 통해 카자흐스탄 현지 금융정보와 신한금융의 금융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했다. 카자흐스탄 산업·인프라 개발 사업과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나유리 기자

‘홍콩 ELS’ 은행 과징금, 추가 감경 가능성

금융위, 은행 제재안 상정 안해 ‘관련 민사소송 은행 승소’ 변수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에 대한 은행권 제재가 장기화하고 있다. 최근 관련 민사소송에서 은행 측 승소 판결이 잇따르면서 최종 과징금 수위가 추가로 낮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안전검토소위원회에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의 홍콩EL

S 제재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제재 수위가 확정되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금융위는 지난 5월 홍콩ELS 제재안을 논의한 뒤 일부 사실관계와 범의 검토가 필요하며 금융감독원에 보완을 요구했다. 이후 금감원은 지난 6월 5개 은행에 대한 과징금 규모를 약 6000억원으로 낮춰 다시 의결했다. 지난 2월 금융위에 제출했던 약 1조4000억원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수준이다.

최근 이어진 민사소송 결과도 변수로

떠올랐다. 국민은행이 ELS 투자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농협은행도 최근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투자자의 금융상품 거래 경험과 투자 경력 등을 토대로 상품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주요 판단 근거로 삼았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민사판결을 최종 제재 수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금융위가 앞서 사실관계와 함께 적용 법리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구한 만큼 은행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과징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나유리 기자

고객 입력 문장 분석 정보 찾아줘

KB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에 생성형 AI를 활용한 ‘KBAI’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KB AI는 고객이 일상적인 표현으로 질문하면 AI가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 필요한 정보나 금융서비스를 안내하는 대화형 금융서비스다.

자연어 기반 통합검색을 적용해 고객이 입력한 문장의 의미와 맥락을 분석하고, KB스타뱅킹의 메뉴와 금융상품, FAQ 등 관련 정보를 한 번에 찾아준다. 기존 키워드 중심의 검색 방식과 달리 정확한 메뉴명이나 금융 용어를 몰라도 원하는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단순한 정보 검색을 넘어 실제 금융거래까지 대화형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달 체크카드 사용내역 보여줘”, “이들한테 용돈 10만원 보내줘”처럼 원하는 내용을 입력하면 AI가 고객의 의도를 파악해 조회 및 이체 등 해당 서비스를 실행한다. 고객이 메뉴와 기능을 일일이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검색·조회·이체 등 기능별로 대화창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화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고객은 이용하려는 AI 기능을 별도로 선택하거나 화면을 이동할 필요 없이 원하는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안상미 기자 smahn1@

KB국민은행, 스타뱅킹서 ‘KB AI’ 서비스